# LG전자 MC사업본부, 전체 매각? 부분 매각?…다양한 시나리오 주목



# 'LG폰 철수 임박'

LG전자 휴대전화 사업 철수가 임박했다. L 가전 등 다양한 기기를 연결해 주는 허 G전자가 "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검토하 고 있다"고 밝힌 지 한달이 지났다. LG전자 는 '검토 단계'라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하고 있지만, 시장에선 사업 철수를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. 업계는 핵심 기술은 유지하면서, 하드웨어 생산 부문을 매각하 는 안을 유력하게 보고 있다. 이르면 3월 주 주총회 전에 결론이 나올 전망이다.

스마트폰은 자동차 가전의 허브 하드웨어 생산부문은 매각하고 모바일 기술·브랜드 유지할수도 세계 첫 롤러블폰 출시도 불투명

## ●어떻게 되나?

권봉석 LG전자 사장은 지난 달 20일 스마트폰 사업을 담당하는 MC사업본부 와 관련해 "모든 가능성을 열어 두고 사 업 운영 방향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" 고 말했다. 대표가 직접 철수를 염두에 둔 발언을 한만큼 이미 구광모 회장 등 LG그룹 경영진과도 교감이 있었던 것 으로 보인다. 업계에선 사업부 전체 매 각 또는 부분 매각, 철수 등 다양한 시나 리오가 나오고 있다. 매각의 경우 증권 가에선 이미 구글부터 폭스바겐, 베트남 기업까지 다양한 인수 대상자가 거론되 고 있다.

관련업계는 하드웨어 생산 부문은 매 각하고 핵심 기술은 남기는 방안을 유력 하게 보고 있다. 스마트폰이 자동차와

브 역할로 진화하고 있어서다. LG전자 가 기존 사업을 넘어 전장, 로봇 등으로 사업 영역을 넓히고 있다는 점도 이를 뒷받침한다. 구광모 회장의 이른바 '선 택과 집중'전략도 궤를 같이 한다. 구 회장은 2018년 취임 이후 신사업을 적극 추진하는 동시에 적자 사업은 과감히 정 리하는 등 체질 개선을 하고 있다. 휴대 전화 사업을 유지하는 방향도 있다. 다 기고, 생산을 모두 제조업자개발생산(O DM)으로 전환하는 등 사업 축소가 불가 피할 전망이다. LG전자는 지난 달 실적 발표 뒤 가진 커퍼런스콜에서 이와 관련 해 "핵심 모바일 기술이 미래 사업과 시 너지를 창출할 수 있도록 다양한 내재화 방안을 검토 중이다"고 밝혔다.

있다. MC사업본부를 매각 또는 축소하 면 빠른 실적 개선이 이뤄질 것이란 전 방송통신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삼성전 망이다. 실제 매각설이 가시화된 지난 자점유율이 과도하게 높아져 소비자 부 달 20일 LG전자 주가는 전 거래일보다 12.84% 오른 16만7000원에 거래를 마 치며 신고가를 갈아 치웠다. 지난 19일 에도 16만8000원에 장을 마감했다. 증 권업계는 적자사업인 스마트폰 사업을 정리하면 LG전자 기업가치가 10조 원 이상 증가할 것이라며, 목표주가를 20만 원으로 높이기도 했다.

## ●시장 영향은?

LG전자가 스마트폰 사업을 철수할 경우, 삼성전자가 가장 큰 수혜를 입을 것으로 보인다. 카운터포인트리서치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스마트폰 점유율은 삼성전자가 65%. 애플이 20%를 차지했 다. LG전자는 13%에 그쳤다. 애플은 O 은 "소비자들의 불편이 없도록 할 것이 S가 다르고, 화웨이 등 중국 스마트폰은 다"는 원론적 답변을 내놨다. 국내에서 소비자의 신뢰를 얻지 못한 만 큼 기존 LG전자 스마트폰 이용자 상당 수가 삼성전자 제품으로 옮겨갈 것으로 전망된다. 이 경우 삼성전자의 점유율은 80%에 이를 전망이다.

스트는 "LG전자의 사업 매각·축소 검 토 소식이 전해지며 국내 시장 내 양강 만 이 경우도 핵심 기술과 브랜드만 남 인 삼성과 애플의 입지가 올 한 해 더욱 과 9일 만인 20일 LG전자가 돌연 사업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"고 말했다.

하지만 삼성전자에도 좋은 소식만은 시는 안개 속에 묻혔다. 아니다. 점유율이 높아질 경우 독과점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를 수 있기 때문 이다. 제품 가격이 오르는 등 독과점 이 슈가 불거지면 정부가 규제안을 마련할 수도 있다. 정부도 주목하고 있다. 최기 증권가에선 사업 철수를 호재로 보고 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17일 서 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 담이 높아질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"앞 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시장 동향을 지켜 보겠다"며 "할 수 있는 범위에서 대책을 마련하겠다"고 말했다. 또 대안으로 나 온 중저가폰 쿼터제 도입에 대해선 "제 조사들이 중저가 단말기를 판매하기 시 작했고, 결과를 살펴봐야 한다"며 신중 한 입장을 보였다.

애프터서비스(AS)에 대한 우려도 있 다. 업계는 LG전자가 휴대전화 외에도 가전 등 다른 일반 소비자 대상(B2C) 사 업을 병행하고 있는 만큼 당장에 불편이 생기진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. 하지만 부품 수급에는 어느 정도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. 이런 우려에 대해 LG전자 측

#### ● '롤러블'의 운명은?

또 하나 관심을 끄는 것은 LG전자가 1월 11일(미국 현지시간) 열린 가전전시 회 CES에서 영상으로 공개한 세계 최초 이윤정 카운터포인트리서치 애널리 롤러블폰 'LG롤러블'의 출시 여부다. 화면이 돌돌 말렸다 펼쳐지는 영상은 국 내외에서 큰 관심을 모았다. 하지만 불 전면 재검토 입장을 밝히면서 롤러블 출

> 업계에선 롤러블 출시가 사실상 어려 워진 것 아니냐는 분석이 많다. 당초 3월 공개하고 상반기 중 출시 예정으로 알려졌으나, 2월 말이 됐음에도 제품에 대한 어떤 소식도 들리지 않기 때문이 다. 롤러블이 기술적으로 한 단계 더 진 화한 제품인만큼 수율과 높은 단가 탓에 시장성과를 장담할 수 없다는 점도 롤러 블 출시를 포기할 것이란 전망에 힘을 보태고 있다.

일각에선 매각 전 몸값을 높이기 위해 시제품을 공개했다는 얘기까지 나온다. 롤러블 출시가 불발되면 최근 공시지원 금을 크게 올리며 재고 소진에 나선 '윙' 이 사실상 LG전자의 마지막 프리미엄 전략폰이 될 가능성이 크다.

다만 LG전자는 아직 개발을 포기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. LG전자 관계 자는 최근 스포츠동아와의 통화에서 "롤러블 개발이 중단되지는 않았다"면 서도 "실제 출시될지는 MC사업본부와 관련한 큰 그림이 나와 봐야 알 수 있을 것이다"고 말했다.

김명근 기자 dionys@donga.com

#### LG 휴대전화 26년 역사

# 초콜릿폰 1000만대 빅히트 불구 스마트폰 경쟁 애플·삼성에 밀려

*스로*≿등다 2021년 2월 22일 월요일 **15** 

ΙТ

LG전자는 1995년 MC사업본부의 전신인 L G정보통신으로 휴대전화 사업을 시작했다. 2000년에는 LG전자와 LG정보통신을 합병하 고 지난 20여 년 동안 휴대전화 사업을 지속해 왔다. 1995년 '화통(話通)' 브랜드를 시작으로 싸이언, 초콜릿폰, 프라다폰, 와인폰 등을 내놓 으며 2000년대 후반까지 큰 호응을 얻었다. 초 콜릿폰의 경우 1000만 대가 넘게 팔리며 '텐밀 리언 셀러'에 등극하기도 했다. 이런 성과에 힘 입어 LG전자는 2003년 미국 CDMA(코드분할 다중접속) 시장 점유율 1위에 오르기도 했고. 2008년에는 모토로라를 제치고 전 세계 휴대전 화 시장 3위에 올랐다.

하지만 스마트폰이 대세가 된 뒤에는 경쟁사 인 애플, 삼성전자에 밀려 고전했다. 초기 윈도 우 운영체제(OS)를 기반으로 한 제품을 내놓는 등 실기도 있었다. 2010년에는 안드로이드 OS 기반 '옵티머스' 브랜드를 선보이며 분위기 반 전을 노렸으나, 빼앗긴 시장을 되찾는 것은 쉽 지 않았다.

2013년에는 전략적 변화를 줬다. G시리즈 첫 모델을 출시하며 재기를 노렸고, 'G3'와 'G 4'가 연이어 양호한 성적을 내며 재도약의 발 판을 마련하는 듯 했다. 하지만 2016년 실험적 으로 선보인 모듈형 스마트폰 'G5'가 예상보 다 저조한 성적을 거두면서 2015년 이후 지금 까지 23분기 연속 적자의 늪에 빠졌다. 2019년 에는 생산라인 이전과 인력 재배치. 제조업자 개발생산(ODM) 확대 등 사업구조를 큰 폭으 로 개편했다.

하지만 실적 턴어라운드는 쉽지 않았다. 지 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(코로나19) 여파로 위축된 시장에서도 생활가전이 실적을 이끌며 매출액과 영업이익 모두 역대 최대 기 록을 갈아 치웠지만, MC사업본부만은 적자를 면치 못했다. 브랜드 전략을 수정하고 내놓은 프리미엄폰 '벨벳'과 '윙'이 기대만큼의 성과 를 거두지 못한 탓이다. 현재 LG전자의 전 세 계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은 약 2% 미만에 그 치고 있다. 김명근 기자

## 박경호의 운수 좋은 날

부로 나아가지 말고 자기 몸을

돌아보고 인덕을 연마하며 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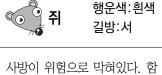
험한 시기를 넘겨야 한다. 시기

가 좋지 않으므로 모든 일에 모

험을 피해야 하며 내부의 정리

에 힘써야 할 때이다. 오늘보다

## 2월 22일(월) 음력: 1월 11일 문의: (02) 812-1201, 도원학당



행운색:흰색 길방:서



행운색:흰색 길방:서

결단력을 갖고 자신의 의지대

로 결행함이 필요한 때다. 명예

가 따르고 금전적인 여건도 아

울러 발전하니 좀 더 적극적인

자세로 밀고 나가는 행동력과

확고한 자기노력이 뜻을 실현

할 수 있게 할 것이다. 매사 자



행운색:적색 호랑이 호랑이 길방:남

왠지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은 날

이다. 귀인의 도움으로 명예와

재물이 따르며 문서적인 문제

도 자신의 소신대로 이루어질

것이다. 이성간에도 지금까지

의 지연상태가 급변하여 원하

는 상태로 돌입하며 좋은 인연



행운색:적색 길방:남

운세 자체가 좋지 않다. 나쁜 의

미로 사기를 당하거나 재난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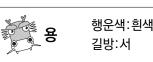
만날 수 있는 날이다. 진행 중인

일에 골치가 아픈 일이 생길 수

있다. 잘 풀리지 않으며 교재비

를 많이 쓰게 된다. 금전의 융통

이나 어려움의 해결은 용띠에



모든 일에 과감하게 나아가지

만 자기의 능력 이상으로 일을

벌이면 실패하기 쉬운 때이다.

지출이 많을 때이니 되도록이

면 저축에 힘써라. 너무 밀고 나

아가면 상대가 주춤하고 멈춘

다. 상대가 먼저 움직일 때를 기



행운색:청색 뱀 길방:동

되도록 무리를 하지 말고 쉬운 길을 골라서 식견 있는 사람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중 요하다. 함부로 나아가지 말고 자신을 돌아보고 인덕을 연마 하며 위험한 때가 지나길 기다 려야 한다. 운이 막혔으니 바라 지 말라.

행운색:흰색

길방:서



내일이 길하다.

행운색:노랑 길방:중앙



행운색:흰색 길방:서



행운색:검정 길방:북



행운색:검정 길방:북



다리며 생각하라.

길방:서 성실함이 있어야 크게 길하다.

행운색:흰색

너그러운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한다면 처음은 우여곡절이

**원 돼지** 

오늘의 날씨 22일(월) 인천 춘천 서울 10/0 10/0 10/0 5 4 14 20/0 대전 10/0 전주 0/0 8 17 대구 0/0 부산 광주 0/0 0/0 11 19 18 창원 0/0 제주 0/0 지역 12 최저 날씨 20 최고기온℃

<u> </u>							제3521호	
발행인 이연	인철	편집인	이성춘	편집국장	연제호	광고국경	당 이승욱	
편집부장 산업경제부장	안도영 양형모		\포츠부장 \·진부장	정재우 고종철	엔터! 인쇄	테인먼트부장	이정연 동아일보사	
광고문의	02-361	-1612	구독신청	1588-202	0 F.	AX 02-36	31-1617	
www.sportsdonga.com (우) 03737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충정로 29								
2008년 3월 3일 등록번호 서울 가-00131호〈일간〉 2008년 3월 24일 창간								
본지는 신	문윤리강령	및 그 실침	천 요강을 준	수합니다. 구독	<b>독료</b> : 한딜	12,000원, 1	부 700원	
대표전화	02-361-	-1610	제보	·투고 02-36	1-1616	sol@don	ga.com	

무슨 일에 있어서나 외견상의 만사가 형통하는 운이나 큰일 화려하고 성대한 것에 사로잡 은 할 수가 없다. 너무나 소극적 히지 말고 신중해야 한다. 물질 이라고 할 만큼 저자세로 일에 이나 금전적으로 충분치 못한 임하면 크게 길할 것이다. 모든 데도 호화롭고 사치스런 생활 일에 도를 지나치면 도리어 재 을 바라는 욕망이 강할 때이다. 해를 입기 쉬운 때이므로 특히 검소한 생활을 하지 못하면 문 대인관계 등에 신경을 많이 써 제가 발생할 수 있다. 야 하겠다.

땅 속의 씨가 싹이 터서 따뜻한 태양의 열로 잘 자라 이윽고 큰 나무가 되는 것처럼 모든 운세 가 나아지기 시작하는 때이다. 어린 싹은 봄이란 계절과 강렬 한 생명력과 풍부한 영양분을 필요로 한다. 견실하게 자신을 가지고 나아가라.

계획을 실천으로 옮길 수 있는 계기가 조성되며 직업이나 학 업을 통해 보다 확고한 자신의 기반을 구축해야 하는 시기이 다. 적극적인 자세로 임했을 때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. 매사 계획대로 이루어 지는 날이다.

허물이 없고 마음을 바르고 곧 게 가져야 한다. 아무 이득도 없 는 일을, 주위의 비웃음을 받으 면서도 관철해 나가는 자세가 필요하다. 물질적으로는 손해 지만 나중에는 이익이 되어 돌 아온다. 관재수를 조심하라.

있겠으나 나중에는 많은 사람 의 협력을 얻어 대사업을 완성 시킨다. 사람들을 많이 사귀게 된다. 남보다 빨리 신뢰할 수 있 는 사람에게로 가서 협력을 구 하라.